Global News

1.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지지 강화

□ 캐나다 공적연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하 CPPIB)[50]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기업 이사회 내 성 다양성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51]

○ CPPIB는 전세계 상장기업 이사회의 성별 균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의결권행사 정책으로 'Global Gender Diversity Voting Practice'를 채택함

- CPPIB의 Sustainable Investing Team은 기후 변화, 물, 인권, 임원 보상에 더하여 이사회 효율성을 주요 관여 이슈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정책을 채택함

○ 'Global Gender Diversity Voting Practice'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동 정책은 Canadian Initiative의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활동의 고무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동 사안에 대한 CPPIB의 관여활동 확대 노력 역시 포함하고 있음

□ CPPIB는 이사회 내 성 다양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더 나은 기업 관행(corporate behaviors)을 만들어 나가도록 기업에 대해 관여활동을 하는 것이 CPPIB에게 위임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함

○ CPPIB는 수년간 투자대상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는 여성 이사가 선임 되지 않은 캐나다 상장기업 45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해 회사들과 소통한 바 있음

- 동 노력의 결과로 2018년에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선임함

□ CPPIB는 나아가 타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함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BlackRock은 최근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주주총회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이사회 구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52]

○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53] 역시 캐나다 S&P/TSX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에 대한 권고시 회사가 명문화된

50)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캐나다의 최대 규모 공적 연기금으로,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하나임. 지난해 9월말 기준 운용자산은 3,683억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CPPIB의 추정 운용 수익률은 6.6%로 해외 연기금 중 장단기 모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서울경제, 2019.1.7., "[시그널] '수익률 추락'국민연금, 대체투자 전략 바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Y1J30FT], 이데일리, 2019.1.3.,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2%씩만 높이면 보험료 안올려도",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2354112&mediaCodeNo=257&OutLnkChk=Y]

51) CPPIB, 2018.12.21.,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to Increase Board Diversity Advocacy", [http://www.cppib.com/en/public-media/headlines/2018/cppib-increase-board-diversity-advocacy/]

52) 김진성, 2018, "이사회 다양성 현황 -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KCGS Report」, 제8권 제6호, p.4

53)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아주경제, 2018.8.6., "스튜어드십코드 시대 '한국판 ISS' 키워야", [https://www.ajunews.com/view/20180806143112085]

성 다양성 정책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사회 구성원에 여성 이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반대하도록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부터 동 정책을 적용할 계획임[54]

- 의결권 자문기관인 Glass Lewis[55] 또한 2019년도 의결권 자문부터 이사회 구성원에 여성 이사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다양성 부족과 관련한 계획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밝히지 않는 기업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할 것을 정책으로 정한 바 있음[56]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이사회 내 성 다양성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동 이슈와 관련해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의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 또한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57]

54) 자세한 내용은 ISS, 「2018 Canada Proxy Voting Guidelines for TSX-Listed Companies」, 2018.1.4.
55) 미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며, ISS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뉴스, 2018, "2018 Glass Lewis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KCGS Report」, 제8권 제2호, p.14
56) 각주 55)와 동일
57) 각주 52)와 동일